

한, 지명직 최고 호남·충청 한명씩

‘호남 배제’ 당내 반발에 밀려 홍준표 대표 당초 방침 바뀐다 다음주 중 임명... 호남몫은 김장수·이정현·안재홍 거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애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충청권 인사 2명을 임명하려던 방침을 바꾼다. 충청권과 호남권 인사를 각 한 명씩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의 한 측근은 10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충청·호남 인사 한 명씩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임명시기는 다음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충청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홍 대표가 지난달 27일 최고위 회의에서 임명하려고 했던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우택 전 충북지사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사장은 충청권의 대표적 친이(친이명박)계로 홍 대표가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호남권에선 당 비례대표 의원인 김

장수·이정현 의원과 함께 안재홍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가 호남 몫 최고위원으로 김장수 의원에게 힘을 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대표의 입장 선화는 ‘호남 배제’에 따른 호남권의 반발과 함께 ‘전국 명박’계로 홍 대표가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 지도부에서는 원희룡·유승민

최고위원이 ‘호남 배제’에 강하게 반대했고 정용화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 광주·전남지역 당협위원장들도 홍 대표를 몰아세웠다. 한편, 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 충청·호남권의 유력 인사를 영입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의 공동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인재영입 차원에서 ‘뉴페이스’를 지명직 최고위원 2명으로 영입하자는 게 민본21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이정희 대표(가운데)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9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미래의 진보’의 북 콘서트에서 저자 이정무 민중의 소리 편집국장(오른쪽 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희·유시민 광주서 ‘진보대통합’ 강조

어제 DJ센터 ‘북 콘서트’... “정권교체 위해 백의종군이라도 하겠다”

민주당 이정희,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지난 9일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진보 대통합’이란 주제의 북 콘서트(Book Concert)를 갖고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대표는 또 내년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백의종군’이라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두 사람의 북 콘서트에는 민주당과 국합당 관계자, 지지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진보 대통합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가졌다. 이정희 대표는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정당은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이라며 “통합을 가장 앞에서 추진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모래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몸을 낮추고 진심이 통하는 새로운 통

합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언제나 선두에서 희망을 만들어 준 광주·전남 지역민이 미래의 진보를 키워 달라”라고 호소했다. 유시민 대표는 “갈등을 넘어 민중을 위한 정의로운 역사와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며 “국민참여당이 없더라도 굳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 한다. 만약 민지가 왜 흠어져야 할 수 있다면 민지가 왜 흠어져야 할 수 있는가”고 말했다. 유 대표는 “참여당 관계자, 지지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진보 대통합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가졌다. 이정희 대표는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정당은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이라며 “통합을 가장 앞에서 추진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모래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몸을 낮추고 진심이 통하는 새로운 통

합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언제나 선두에서 희망을 만들어 준 광주·전남 지역민이 미래의 진보를 키워 달라”라고 호소했다. 유 대표는 “갈등을 넘어 민중을 위한 정의로운 역사와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며 “국민참여당이 없더라도 굳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 한다. 만약 민지가 왜 흠어져야 할 수 있다면 민지가 왜 흠어져야 할 수 있는가”고 말했다. 유 대표는 “참여당 관계자, 지지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진보 대통합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가졌다. 이정희 대표는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정당은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이라며 “통합을 가장 앞에서 추진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모래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몸을 낮추고 진심이 통하는 새로운 통

손학규 ‘희망대장정’ 일단락

민생현장 탐방 일단 접고 정기국회 전념할듯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민생진보를 기치로 전국의 민생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작한 희망대장정 행보를 접고 정국에 올랐다. 손 대표는 올해 초 전국의 민생현장을 훑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희망대장정 행보에 올랐다. 상반기에만 전국 100여 곳을 방문해 민생현안을 살피며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또 7월 초부터 희망대장정을 변형한 ‘동고동락 민생실천’ 행보에 올랐다. 희망대장정이 지역별 현장방문과 민심청취에 초점을 뒀다면 동고동락 행보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하고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정치는 민생으로 부터 시작하고 정치의 최종 목표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민주당은 열심히 앞서 달려왔다는 점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며 희망대장정 일단락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도 상승에 대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총합을 높여주는 것으로 큰 틀에서 반갑고 고마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남호, 한진중 사태 해결 전면 나서나

“책임 다할것”...국회 결정 존중 청문회 출석 시사

대규모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책임 회피 질타를 받아온 한진중공업의 최고경영자이자 책임자인 조남호 회장이 10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6월17일 해외출장길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조 회장은 특히 이날 부산시청에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든 못한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호소문에서 “노동자와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이번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느냐며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공개석상에 나타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해 증인으로 출석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조 회장은 또 “한진중공업을 이끄는 경영 책임자로 회사와 임직원들의 회생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지만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해찬, 민주진보집권 연석회의 제안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10일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민주진보진영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칭)‘2012년 민주진보집권을 위한 연석회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조선대 서석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주관 정세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그동안 현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민심이 돌아서는 등 정치지형의 변화로 인해 한나라당과 민주진보진영이 1대1 구도로 갈라선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일정상 최종적으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일인 오는 12월11일 전까지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달 안으로 시



단단체와 민주인사를 중심으로 제안자 모임을 열고 9월 초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문상필, 평통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3) 환경복지위원장은 10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광주시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 초안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과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통일교육활성화계획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 의원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조례안을 만들어 9월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야권통합은 국민의 명령”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0일 “야권 최고의 개혁과 혁신은 내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이며, 이를 위한 야권통합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야권 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핵심당원 간담회에서 “국민은 간단하게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한다. 국민은 우리

를 한 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대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인 민주당 강기갑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5석을 얻는 것보다 3~4석을 갖더라도 연합을 통해 야권이 7석으로 승리하는 것이 정권교체의 길”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이명박 대

통령이 실패하고 한나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이 자동으로 잘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연 준비돼 있는가 반성이 필요한 때”라면서 “왜 우리는 실패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과 시민을 대변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강한 민주당”을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 최초! **음성채팅의 신기원**
무료 음성커뮤니티

어디서나 24시간 100% 직접 통화됩니다. (직접확인하세요!)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090 정보이용료나 고액의 채팅가비를 내던 인터넷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채팅서비스 이전 행적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無 환불가인비 無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1688-5425 남·여 공통사용

매너만남방 10번 | 여행정보방 12번 | 음성 소셜방 07번
 보글보글방 01번 | 연인만남방 03번 | 1:1 대화방 15번

14년 전통 하트폰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65일 24시간 바쁘게만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